



제66대 멕시코 대통령에 셰인바움 당선

제66대 멕시코 대통령에 前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셰인바움이 당선됐다. 이번없이 사전 여론조사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오늘(6월3일 오후 4시) 92% 개표가 진행된 결과다.

중앙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는 모레나당의 셰인바움이 하한 58.3%~ 상한 60.7% 정도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잠정 당선자로 발표했다.

공식적인 최종 발표는 내일에 중앙선관위(ENE)가 발표하게 된다.

멕시코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당일 결과 나오지 않고 각 지역별 개표 결과가 나오면 이를 취합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통상 선두와의 격차가 두드러질 경우 임시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만약, 접전에 가까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경우에는 최종 개표를 마치고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전자의 경우를 따랐다.

야 3당 연합후보였던 소치를 갈베스는 예상보다 저조한 하한 26.6%~ 상한 28.6%로 예상됐다.

또 다른 군소 정당인 MC(시민운동당)의 호르헤 알바레스 마이네즈는 하한 9.9%~ 상한 10.8%를 득표한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자신이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번 선



거에서는 나 혼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도착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Constitucion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Sheinbaum Pardo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과의 차이가 30점 이상이며 예비 결과이지만 다수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음을 축하했다.

특히, "차별 없는 정부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임기 첫 번째 정책인 "플랜 C'와 현 대통령 AMLO의 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쟁자였던 Xochitl Galvez 야3당 대표에 대해 "Fuerza y Corazon por Mexico의 후보인 Xóchitl Gálvez Ruiz에게 승리를 인정하는 전화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면서 Movimiento Ciudadano의 후보인 Jorge Alvarez Maynez의 전화에 대해서

도 사의를 나타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누구인가?

전 멕시코 시티 정부 수반은 1963년 6월 24일에 태어났으며 각각 직업상 화학자이자 생물학자인 Carlos Sheinbaum Yoselevitz와 Annie Pardo 부부의 둘째 딸이었다.

부모가 모두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으며 셰인바움 역시 영향을 받아 같은 성향이다.

그녀는 과학부에서 공부한 후 물리학 학위를 취득한 기관인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를 졸업하고 농촌용 가정용 장작 난로에 대한 열역학적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Sheinbaum Pardo 박사는 UNAM 대학 학생회 회원이었을 때 민주혁명당(PRD)의 창당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 현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와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후 현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시장이었을때 시티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Lopez Obrador 당시 야당후보의 선거출마에 첫 대선 캠페인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현 대통령의 대선 패배이후 2015년에 셰인바움 파르도(Sheinbaum Pardo)는 2018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TLALPAN 구청장에 도전하여 당선되었으며 이어 시티 시장직에 도전하여 당선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마지막 관문이었던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전 외무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를 힘겹게 꺾고 후보직을 거머쥐었으며 이번에 최종 승자가 되었다.

이미 당시 여론조사상 여당의 대선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대선보다도 여당후보 결정전이 더욱 관심을 받았던 경우였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더 위험했고 정쟁이 난무했던 2024 멕시코 대선은 공식적인 중앙선관위의 발표만 남겨두고 막을 내리고 있다.

현 대통령, 현 정부의 철저한 분열의 정치가 기반이 되어 재집권의 성과는 이루었지만 앞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큰 난제를 안고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3월 18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3월 28일~2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7.31	살 때	1,399
팔 때	18.34	팔 때	1,350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멕시코 총선 여당이 압승 "헌법까지 고친다"

어제 치러진 멕시코 총선에서 여당인 모레나(MORENA)당이 압승한 것으로 예비조사 결과로 나왔다.

여당 소속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함께 관심을 끌었던 상, 하원 양원 의석수에도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 차기 정부에 힘을 크게 실어주고 있다.

6년 임기의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지만 6년 임기의 상원, 3년 임기의 하원은 모두 9월 1일에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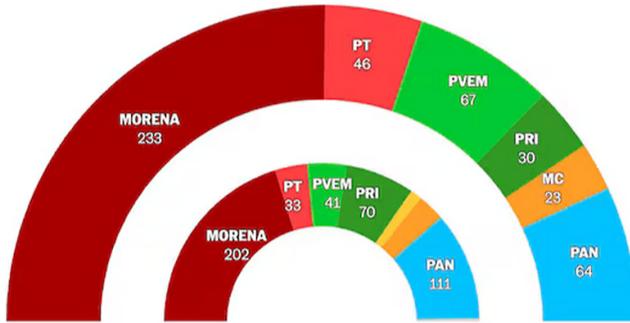
INE(멕시코 중앙선거위원회)의 빠른 집계에 따르면 여당인 모레나당은 여당세력으로 분류되는 녹색 생태학자당(PVEM) 및 노동당(PT) 등 일부 야당을 합칠 경우 상원, 하원에서 모두 헌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멕시코 정당이 고려하는 모든 법적 개혁은 물론 헌법까지 모두 장애물 없이 독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INE 예상에 따르면, 여당 연합이 하원 500석 중 346석에서 최대 380석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333석을 거뜬히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반면, 야3당 연합인

정당별 예상 의석수(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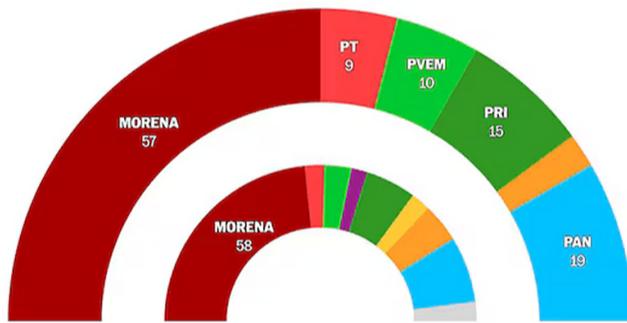
정원: 500명
여당연합: 334명 (MORENA, PT, PVEM)
야당연합: 94명 (PRI, PAN)
군소정당: 23명 (MC)



6월 2일 선거결과 현 의석수

정당별 예상 의석수(상원)

정원: 128명
여당연합: 76명 (MORENA, PT, PVEM)
야당연합: 34명 (PRI, PAN)
군소정당: 득표율 3% 미만은 표기 제외



6월 2일 선거결과 현 의석수 INE(멕시코 중앙선거위원회) 제공

PRI(제도혁명당), PAN(국민행동당), PRD(민주혁명당)의 야당 블록은 최소 94석에서 최대 129석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군소정당

인 MC(시민운동당)은 23~32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원에서도 전체 128석 가운데 집권당 세력권인 모레나

(Morena), PT, PVEM 의원이 최소 76석에서 최대 88석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과반은 86석인데 현재의 예상치로는 이마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 하원 모두 여당이 장악하게 될 전망이다.

상원에서 PRI, PAN, PRD 야당 블록은 최소 34석에서 최대 43석을 차지하며, MC 당은 4~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이 참패하면서 여당연합이 다수당을 넘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다.

지난 6년 임기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법안이 의회나 사법부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총선을 이같은 구세력의 완전 청산의 기회로 삼고 대통령의 인기를 배경으로 전국적인 지지세력 규합, 확산시키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현 대통령의 과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나타내면서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당선된 쉐인바움 당선자는 큰 어려움 없이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6년 임기의 새 대통령의 힘은 절대 권력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조연자

멕시코에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유자금으로 투자 또는 저축 보험에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새로운 투자 펀드에 투자, 고수익
- 프랜차이즈에 직접 투자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시 혜택
- 노후 걱정 없이 품위 있는 은퇴를 위해 사용
-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
- 집을 구매 할 때 지원
- 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경비 지원 혜택
- Allianz Mexico의 옵티막스 상품을 통해 큰 혜택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메일: begj@bgjtuasesorseguro.com

bernardoegj@bgjtuasesorseguro.com.mx

www.bgjtuasesorseguro.com/seguros-e-inversiones-0-0-0-0-0

전화: 56-2802-8481 담당: Bernardo Gonzales Jimenez



멕시코 총선, 주지사 9곳 중 여당이 7개주 차지

멕시코 시티 시장을 포함하여 전국 9주지사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의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모레나당이 7곳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중앙 선관위의 잠정 개표결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선출한 주지사는 멕시코 시티 시장, 과나후아토, 뽀에블라, 유카탄, 치아파스, 모렐로스, 타바스코, 할리스코, 베라크루즈주 등 9곳이다.

여당인 모레나당은 시티 시장을 포함, 9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주지사를 배출했다.

PAN(국민행동당)이 과나후아토주, MC(시민운동당)이 할리스코주에서 각각 1곳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전에 차지하고 있던 지역까지 포함하여 멕시코

주지사 선거결과 2024.6.2



전체 32개 주 중 24개주가 집권당 연합세력(모레나당, 녹색당)

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멕시코 전체 32주 중 여당

(Morona, Verde)세력이 24곳을 차지하게 됐다. 야당은 8곳에서 소속당 주지사가 있다. *멕시코 중앙선관위(INE)제공

요약하면 전체 32개 주 중 여당이 24주, 야당은 6개 주에서 소속 주지사가 있으며 군소 정당인 MC(시민운동당)이 2곳을 맡고 있다.

주지사 선거는 차기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집권당 소속 주지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차기 대선 역시 현 집권당이 유리한 조건에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 의회 의원과 같이 주지사가 같은 당 소속일 경우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은 대통령 배출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멕시코 시티 구청장 선거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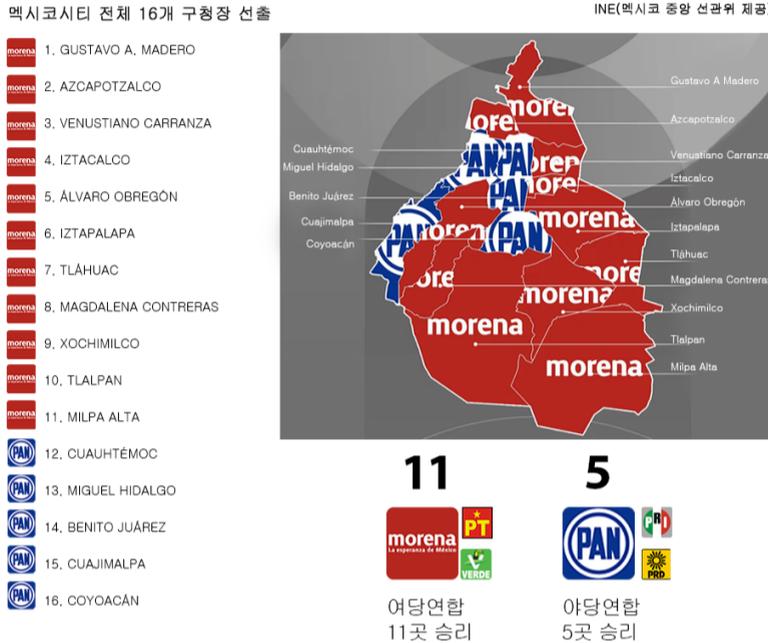
9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멕시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인 멕시코 시티는 시장직을 어느당이 차지하느냐가 우선 관심사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풀뿌리에 해당하는 지역 구청장도 어느당 소속이냐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영향력이 상당해 각 당은 전력투구로 지역 탈환에 적극적이다.

전체 16개 구청장 중 집권당과 우호세력이 11곳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다.

야당은 5개 지역으로 쪼아들었다. 이전 선거에서 여당이 9곳, 야당이 7곳을 차지한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다만, 구청장 중에서 가장 노른 자위에 속하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파우페묵(Cuauhtemoc), 미겔이달고(Miguel Hidalgo), 후아레스(Juarez) 구청장은 야당이 차지하

멕시코 시티 구청장 선거 결과 2024.6.2



면서 명목은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임기의 멕시코 시티 구청장

은 업무성과나 정치역량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당락이 심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 특정 지역이 특

정당을 지지한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통상,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집권당 지지기반으로 분류되면서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실제 투표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포함, 시티시장을 묶어서 여당으로 표를 유도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경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선거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3년 임기인 만큼 짧은 기간동안 업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냉담하게 돌아서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 교사들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초 교육 교사들의 급여를 평균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초교육 교사들에 대한 월급은 매년 10% 인상되면서 6년 임기동안 총 47.5%가 인상됐다.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은 "멕시코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인정, 즉 특별한 대우" 라고 했다.

월급 10% 인상은 당일(15일)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前前 정부인 "칼데론 정부 말기 초등학교 교사는 월 9,580페소, 前 정부인 페냐 니에포 정부 말기에는 월 11,952페소를 지급했지만 6년이 지난 이제 월 17,635페



소(원화로 약 135만원)를 지급 받게 된 것이다.

교육 분야의 행정직 근로자의 경우, 칼데론 치하에서는 6,758페소, 페냐 치하에서는 8,430페소를 받았지만 이제는 16,778페소(원화로 약 130만원)를 받게 된다.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연도별 달러-페소 환율로 조정된 수치로 보면 2012년 월 684달러, 2018

년 월 716달러, 새로운 급여 인상으로 월 1,037달러 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급여 정책은 저소득층 교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예산 총 250억 페소가 교사의 급여를 인상하는데 지원됐다.

그러나, 정부의 교사 급여 10% 인상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최대 교원 노조인 전국 교육노동자 연맹(SNTE)에서 분파한 전국교육

노동자조정관(CNTE) 회원들은 정부의 인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오악사카, 미초아칸, 게레로, 치아파스 주에서 먼저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약 40,000개의 학교가 문을 닫고 130만 명 이상의 멕시코 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조는 또한 멕시코 시티의 학교도 시위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노조의 반발에 대통령은 CNTE 노조 지도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협상할 예정지만 대통령은 "교사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가능한 한도까지 인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서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의 의미

멕시코에서 200년 선거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녀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다.

과연 완전한 자율성을 갖춘 대통령이 될지 여부를 두고서다.

1824년 10월, 멕시코인들은 당시 신생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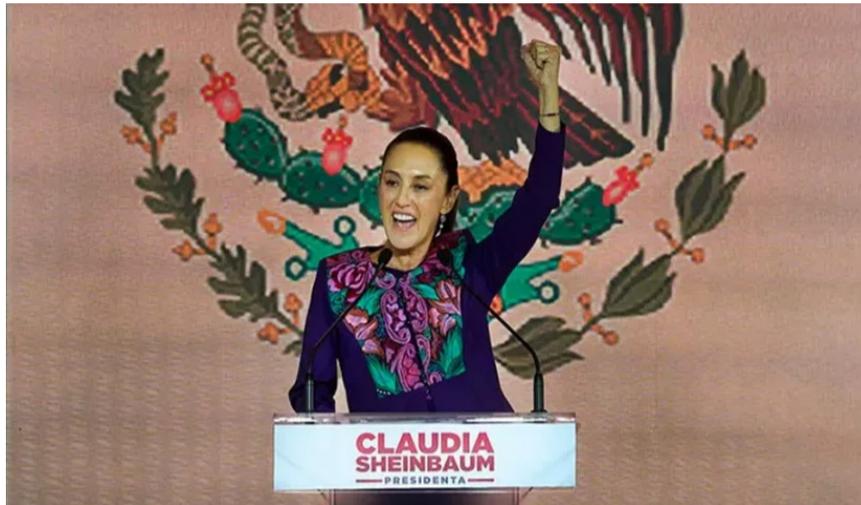
과달루페 빅토리아(Guadalupe Victoria)가 그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 이후로 처음에는 4년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년마다 이 나라 시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 총 65명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했다. 그들은 모두 남성이었다는 공통점이다.

어젯밤, 유권자 다수의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멕시코 국가의 수장이 더 이상 남성이 아닌 여성이 되었다.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멕시코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멕시코 중앙선거위원회(INE)의 빠른 집계와 58~60%의 득표율을 획득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가 어젯밤 대선의 승리자로 선언된 최초의 여성 당선자가 되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여성이 멕시코 정치에 남아 있던 마지막 '유리천장'을 깨고 연방 행정부의 수장이 되기까지 200년이 걸렸다.

INE 개표 예측에 따르면 그녀는 3,500만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 얻은,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인 3,000만 표를 초과하는 수치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소 79명의 상원의원과 최소 320명의 하원의원으로 연방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新정부를 이끌게 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현 대통령이 과업으로 물려



주게 되는 헌법 개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 정권에서 가장 총돌이 심했던 대법원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플랜 C'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집권 모레나당이 9개 주지사 중 6곳에서 승리하면서 전국적으로 여당연합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 섰다는 부분이다.

역으로 말하면 야당이 참패를 한 것이다.

특히, Lopez Obrador 현 정부들이 심각한 문제와 부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멕시코



▲ 야당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

'야3당 연합후보' 라는 배수진을 치고 단일 후보를 내세워 이번 선거에 임했지만 과거 정권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참패를 당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 이라는 말처럼 현 좌파정권의 부패가 현실화되고 이를 국민들이 알아차리기까지는 집권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인물도 부재이지만 인물로 승부하기에는 현 정권의 선명성이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서 야당은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스

스로 무너진 것이다.

야 3당 단일후보로 나섰던 Xochitl Galvez 후보의 부족한 열정과 어눌한 연설이 민감한 선거 시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역대 야당 기수 중 가장 비효율적이고 무능력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야당에서 여당에 맞설 인재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Marko Cortes의 PAN당 대표, Alejandro Moreno의 PRI 대표 및 Jesus Zambrano와 함께 PRD의 지도부는 정당으로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집권 Morena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이 정부

이라는 비판이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승리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약 40%의 유권자들에 대해 "비록 많은 멕시코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걸어가야 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몇 가지 노선을 설명했다.

당선자에 따르면, 서민들 가격과 직결되는 가솔린 연료와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경제와 정치 분리, 언론의 표현, 집회의 자유 보장,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新정부는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전 정부가 약속한 모든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현 정부에 의해 상대적으로 확대 받았던 기업가, 자본가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한, 주택과 교육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적 프로젝트를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에너지 주권정책을 기반으로 한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과학 기술 연구에 적극 투자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당선 이후 첫 번째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통령 당선 후 그의 멘토이자 정치적 스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현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승리는 타바스코 정부(현 대통령의 고향으로 대통령을 지칭)라는 말로 자신으로의 후계자를 낙점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현 정부의 정책계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으로 화답했다.

(관련기사 6면)

미국, 멕시코에서 개 동반 입국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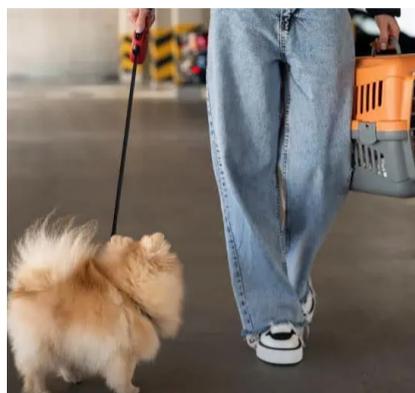
강아지와 함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개를 데리고 미국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들어가는 경우(그 개가 멕시코 출신이든 원래 미국 출신이든 상관 없음) 이번 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새로운 개 수입 요건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육로, 해상, 항공으로 여행하는데 동반한 개는 모두 해당하는데 CDC는 "새로운 규정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 광견병'으로 동반하는 개를 통해 미국에 다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과 동물에게 치명적인 광견병 바이러스는 2007년에 개 광견병이 퇴치된 미국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최 근래에 광견병에 걸린 개 4마리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고를 발령했다.



특히,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여 입국한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다. 작년, 멕시코 보건 당국이 "자국에서 인간 광견병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를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멕시코는 지난 2006년부터 개 광견병이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멕시코를 광견병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새로운 요건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는 첫째,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6개월이 되면 강아지는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된다)

둘째, 모든 개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확인하는 코드와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포함된 마이크로칩을 개의 피부 아래에 삽입해야 한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새로운 양식의 서식에 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개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

미국 CDC의 전자 양식은 7월 15일까지 제공되지 않는데 권장 일정 따르면 개와 함께 미국 국경을 건너기 2~10일 전에 양식을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을 준수하려면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

제예방센터 CD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CDC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견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항공편으로 도착한 경우 반려견은 마지막 국가로 반송되는데 반송 비용은 모두 견주가 물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대해 개 구조협회는 "새로운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개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경지역에 버려지는 개도 그 수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양쪽에서 펼쳐지는 개 구조활동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지침으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매년 약 100만 마리의 개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기상청, 오늘부터 공식 장마철 시작

멕시코 기상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올해 공식적인 장마철(우기철)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비가 오면서 오랜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장마철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 사이클론이 매년 들이 닥치는 멕시코는 연이어 태풍이 상륙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안가 지역인 바하칼리포니아, 키타로 루, 시날라아 및 베

라크루즈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지역이다.

멕시코 국립 기상청(SMN)은 5월 15일 오늘부터 2024년 장마 시작을 공식적으로 예보하면서 앞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시작되는 열대 사이클론 시즌에는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에서 35~41개 태풍 발생을 예상하면서, 그 중 최소한 5개는 멕시코 영토에 상륙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5면에 이어.

이번 선거는 멕시코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다시 한번 무능하고 무기력한 멕시코 야당에게 '쓰나미'였으며, 앞으로 현 정권이 추구하는 자칭 '4차 변혁(사법개혁을 포함한 개혁정책)'이 6년 더 연속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laudia Sheinbaum 당 선자가 얻은 3,500만 표는 폭넓은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상징성 외에도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과 Lopez Obrador 현 대통령이 추진하려다가 가로막힌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될 권한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보다 더욱 힘있는 권력행사가 가능해져 독단으로 치우칠 우려도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확실한 개혁추진 의지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정당성을 무기로 절대 다수의 여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200년 선거 역사상 이 나라가 갖게 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미지수는 그녀가 완전한 자율성을 지닌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왕'으로 불리는 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훈수정치'로 임기를 마감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데 新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오는 10월 1일까지는 권력 이양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새 대통령이 단독으로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 한 해 판매되는 자동차는 몇 대?

신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해 4월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4.8%나 증가했다.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총 판매수량은 14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통계청(INEGI)에 따르면 4월은 멕시코 신차 판매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달이었다.

INEGI에 따르면 4월 신차 판매량은 총 112,048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했다. 4월 실적도 2016년(11만8754명), 2017년(11만4938명)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달 총 판매량이 2019년 4월 신차 판매 98,366대보다 13.9% 증가하는 등 대유행 최저치에서 계속 회복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는 좋은 소식이다.

2024년 총 신차 판매량은 461,800대로, 2023년 첫 4개월 동안 판매된 412,736대보다 거의 50,000대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4월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에서 판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폭



▲ 멕시코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생각보다 좋더라"도 있지만, "중국산에 대해 믿음이 안간다"는 평가 또한 상당해 아직은 기존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무기로 한 적극적인 영업으로 업계 틈을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다크호스'로 긴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코 시장의 선두 주자인 닛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18,079대의 경차를 판매했다.

제너럴모터스(GM)가 17,325대(18.4% 증가)를 판매했고, 폭스바겐(Volkswagen)과 토요타(Toyota)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엘 이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신문은 폭스바겐의 자동차 판매량(경형 폭스바겐 차량 10,522대 판매)이 17.1% 증가

했고, 도요타(9,785대)가 35.3%라는 인상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기아차(8,500대 이상의 신차 판매, 11.1% 증가)와 마즈다(약 7,200대 신차 판매, 89.6% 대폭 개선)도 성공적인 한 달을 보냈다.

반면, 엘 이코노미스타(El Economista)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 두 곳은 4월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2023년 4월 대비

Chirey의 판매량은 31.4%, MG Motors의 판매량은 21.8% 감소했다. 또한 Fiat는 지난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달 매출은 18.3% 감소했다.

2023년 멕시코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63% 증가했고, Chirey는 2022년 멕시코에 첫 대리점을 개설한 후 지난해 무려 350%나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판매가 감소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소 놀랐다는 반응이다.

엘이코노미스타(El Economista)는 지난 달 자동차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는데 멕시코의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은 4월에 4.63%로 상승했지만, 가격은 전년 대비 1.96% 상승에 그쳐 신차 가격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저렴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멕시코 자동차 유통 협회는 올해 멕시코의 총 신차 판매량이 145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23년에 판매된 경차 1,361,433대보다 약 100,000대가 더 증가하게 된다.

중국 항공기, 멕시코 직항편 4년 만에 첫 국제공항 착륙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멕시코에 착륙한 중국남방항공 항공편이 오늘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AICM)에 도착했다.

중국 심천에서 출발한 이 새로운 직항 노선의 첫 비행은 16시간이 소요됐으며 거리로는 14,147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 중 하나다.

심천에서 멕시코 시티까지의 비행은 직항 비행인 반면, 돌아가는 비행편은 시티에서 출발하여 티후아나 공항에서 30분간의 재급유를 거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고도로 인해 장거리 운항의 경우 항공유를 완

전히 채우고 이륙할 수가 없어 일부만 채우고 티후아나에서 완전히 채운 후 중국으로 출발하게 된다.

중국남방항공은 주 2회(화요일과 토요일에 멕시코행, 수요일과 일요일에 중국행) 노선을 운항하는데 선전에 본사를 둔 중국 정부 뉴스 매체에 따르면 왕복 여행은 Airbus A350 항공기로 서비스되고 있다.

좌석은 중국-멕시코 노선에 252석, 왕복 항공편에 156석을 제공한다.

거대 도시 선전은 중국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여겨지는데 멕시코 수도로의 새로운 비행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의 무역 및

관광 증가를 활용하려는 아시아 국가 전략의 일부다.

주중 멕시코 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미화 12억~13억 달러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멕시코 직접 투자는 5억 87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남방항공은 멕시코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최초의 중국 항공사로, 2017년 광저우-밴쿠버-멕시코시티 노선을 개설한 바 있는데 본사는 광저우에 있다.

지난해 중국 국경을 다시 개방한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노선,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된 유럽과 북미행 장거리 항공편을 복원해 왔다.

팬데믹 이전에는 아에로멕시코, 하이난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3개 항공사가 멕시코와 중국 간 주 8회 왕복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었다. 선전-멕시코시티 노선은 현재 중국남방항공의 가장 긴 노선으로 광저우-뉴욕 노선과 맞먹고 중국 항공사 중 중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노선 중 가장 길다.

현재까지 가장 비행노선은 싱가포르항공의 싱가포르-뉴욕 항공편으로 19시간, 15,332km에 이른다.

총선 후 당선인들의 임기는 언제부터?

10월 1일, 공화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며, 동시에, 선출된 주지사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멕시코 대통령 선거는 2024년 6월 2일 공식 투표가 시작되기 전 Claudia Sheinbaum, Xochitl Galvez, Jorge Alvarez Maynez 간의 마지막 토론(5월 19일)이 개최되면서 실질적인 선거운동은 마무리가 되었다

대선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통상 선거일 3일전에 끝나게 되는데 이번 대선도 6월 2일 선거에 앞서 5월 29일에 끝났다.

유권자들은 오전 08:00부터 오후 18:00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같은 날 예비 결과 프로그램 (PREP)이 시작되고, 2024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개표(집계 및 개표 보고서에 포함된 결과의 합계)가 진행된다.

이때 멕시코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하는 내용이 공식적인 선거 결과인 셈이다

그 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해결되면 각 선거 과정의 승리의 유효성을 선언할 수 있다. 사건이 처리되면 선거 당국이 정한 날짜에 공식 취임식이 열리게 된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몇 곳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종 결론도출 시점은 9월 2일 이전에 모두 판결이 나게 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으로 중앙선거위원회의 관할의 선거 법원에서 이를 다루게 된다,

대통령 임기는 이번부터 2개월이 단축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전 정부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 (EPN)의 6년 임기 동안인 2014년에 제정된 정치 선거 개혁에 따

른 것으로, 이 개혁은 대통령 취임 선서 시기를 12월 1일에서 10월 1일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현 대통령인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대통령에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경우로 이전 대통령과 달리 2개월 일찍 임기가 마무리 되는데 신임 대통령은 두 달 일찍 대통령 따를 물려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30일이 된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로 6년 임기다.

San Lazaro 입법궁에서 공화국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이 나라의 일부 주(3개주)에서는 각각 주지사 교체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주 정부는 언제 바뀌나?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선거에서 대통령직과 9개 주 정부 외에 수천 개의 지역 공직자(지방 자치단체, 시의회, 의회 포함)가 갱신된다.

2024년 10월 1일 대통령과 동시에 주지사 취임 선서를 하는 주는 전체 9개 주지사 중 모렐로스, 타바스코, 유카탄이며 나머지 주는 지역 주정부의 관례에 따라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며칠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과나후아토주의 새 정부는 9월 26일에 주지사가 취임하게 되는데 뒤를 이어 12월 1일에는 치아파스와 베라크루즈 주지사가 취임하게 되고 12월 6일 할리스코, 12월 14일은 푸에블라를 마지막으로 주지사 취임은 마무리된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10월 5일 공식 취임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1069년 선고 받은 두 사람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게 멕시코 법원이 징역 1000년 이상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마리오 알베르토 베세릴 가르시아(Mario Alberto Becerril Garcia)와 마리아 안헬리카 디아스 피차르도(Maria Angélica Díaz Pichardo)로 알려진 이들은 229명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천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배상금으로 2백3십만 페소의 벌금과 7천4백만 페소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6일 일요일 멕시코 주 법무장관실



(FGJEM)에 의해 알려졌다.

멕시코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알베르토 베세릴과 안젤리카 디아즈는 제3자와 함께 229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들이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었던 방법은 투자를 하면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는 것이다. 이들은 Empuje Regional a Micro y Mediana Empresa, Sociedad Financiera Comunitaria' 라는 금융 회사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이 금융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파트너의 지위를 갖게 되고 연 12~20%에 달하는 일반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의 범행은 2019년 8월경 돈을 준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금액은 9,100만 343,783페소(원화로 약 70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이들에

게 사기죄로 징역 106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형제가 없는 멕시코에서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국가위원회 (CONDUSEF)는 금융 서비스 사용자 보호와 사기 예방을 위한 "신고 모니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있는데 전화번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프로필 또는 이메일이 사기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

멕시코 여경, "경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다"

멕시코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살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살인 사건은 4년 동안 20% 감소한 반면, 여성 경찰의 살해 사건은 121% 증가했는데 2019년 이후 160명 이상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Michoacán의 Ptzcuaro에서 세 명의 여성 경찰이 참수당했다.

같은 달 누에보 레온에서는 또 다른 공무원이 그녀의 파트너이자 경찰관에 의해 살해됐다.

한 달 전인 2월에는 제복을 입은 여성경찰과 여섯 살 난 딸이 과나후아토 셀라야에 있는 유치원으로 걸어가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2019년 전국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경찰 살해 사건이 473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총 379건으



로 19.87% 감소한다. 여성 경찰관에 대한 사건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197명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체 경찰 사망자 수는 매년 2~3%(주정부는 4%) 감소세이지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2019년에는 19건이 기록됐지만 2023년에는 42건으로

121% 증가하면서 여성 경찰관의 사망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국의 경찰 사망 사건을 신문에 보도하는 연구자 그룹으로 구성된 조직인 Cobalt Blue Project의 수치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 경찰관에 대한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배제와 소외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불평 등의 산물인 것이다.

두 번째는 마초 문화(남성우월주의)다. 멕시코 사회에서 마초주의의 문화적 비중은 여전히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망한 여경 중 상당수가 가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같은 경찰관으로 연인인 경우다.

특히, 여성 경찰관이 남편이나 동료에 의해 살해되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죽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한다"고 전문가가 요약한다.

즉, 여성경찰은 근무 중 남편이나 동료 경찰관에 의해 살해되는 반면, 남성 경찰관은 대다수 집에서 매복 공격이나 기타 유형의 조직 범죄 공격으로 살해된다는 점에다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 경찰이 가장 많이 살해된 지역은 과나후아토(45건)인데 전국에서 카르텔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다. 경찰에 대한 공격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와 같다.

Microsoft, 케레타로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개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데이터 센터인 케레타로 주에 있는 Microsoft의 새로운 Hyperscale Cloud Data Center가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멕시코 센트럴(Mexico Central)로 알려진 데이터 센터 지역은 지난 주 마우리시오 쿠리(Mauricio Kuri) 주지사,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 라 오(Rogelio Ramirez de la O) 연방 재무장관, 켄 살라자르(Ken Salazar) 주 멕시코 미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케레타로에 개설된 이번 Microsoft의 새로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지역은 멕시코 기업에 더 빠른 속도, 더 짧은 대기 시간 및 더 안전한 연결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프로세스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데이터 집약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가 정신, 재능, 혁신의



문화 덕분에 Microsoft 회사는 케레타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센터의 시작으로 모든 중소기업과 기업가는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쿠리 주지사는 환영했다.

Ramirez de la O 재무장관은 "Querétaro의 새로운 Microsoft 데이터 센터가 멕시코가 첨단 기술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멕시코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효율성을 향상하고

운영에 가치를 더해줄 안전한 최첨단 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Microsoft가 혁신과 투자의 중심지로서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촉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Microsoft가 Querétaro에 개설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지역은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비즈니스 핵심 시설로 지난 2020년 2월 멕시코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발표한 계획의 결과가 이번에 빛을 본 경우다.

비즈니스 매거진 '멕시코 나우(Mexico Now)'는 이 센터가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가들에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결제, 스트리밍 등 핵심 기술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Microsoft측도 "Mexico Central은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성능을 제공하고 라틴 아메리카 조직 및 공공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icrosoft의 진출로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 주요 기술 허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번쯤 먹어봐야 할 특이한 멕시코 음식 9가지

멕시코 요리법은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요리다. 멕시코 이외의 지역에서는 Guacamole, al pastor 스타일 고기, Chilaquiles, 모든 종류의 타코(tacos)뿐만 아니라 포졸레(pozole or mole)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멕시코에는 현지인들조차 이상하고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재료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히스패닉 이전 시대에 먹혔고, 일부는 더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멕시코 요리라는 오랜 예술 형식의 일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한다.

다음은 멕시코에서 만날 수 있는 특이한 요리다.

메뚜기(Chapulines)

메뚜기는 "이국적인" 멕시코 요리로 간주될 수 있는 요리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용 메뚜기가 발견되지만 오악사카주가 유명하다. 먹는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통적인 오악사카틀라유다(Oaxacan tlayuda)를 먹는 것이다. 메뚜기는 작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신맛이 나고 바삭바삭하며 그 자체로 맛있다.

이구아나(Iguanas)

멕시코 해변에 갔다면 이구아나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것을 먹는 지역인 남동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먹어본 어떤 사람들은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한다.

구사노 마게이(Gusanos de Maguey)

당신이 메즈칼 매니아라면 아마도 병 바닥에 누워 있는 이 작은 녀석 중 하나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 잔까지 다 먹었



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게이 벌레가 메즈칼 밖에서도 먹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술 병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일반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게이 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빨간색은 나방 애벌레로 매기를 잡아먹고, 흰색은 나비 애벌레로 매기의 알과 뿌리에서 자란다.

매기 한 마리에서 서너 마리만 얻을 수 있고 수확 후 죽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달고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되지만 틀락스칼라와 같은 다른 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코에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넣어 튀겨서 먹기도 한다.

에스카몰레스(Escamoles)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멕시코 캐비어, 즉 개미 알이라고 부른다.

맛있으면서도 이상한 에스카몰레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부터 이곳에서 먹어왔다. 그래서 테오티우아칸과 같은 역사적인 유적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요리의 이름은 실제로 "개미"와 "스튜"를 의미하는 나와틀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에스카몰레는 수프와 타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버터, 양파, 마늘을 곁들인 요리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도 매우 높다.

후이트라코체(Huitlacoche)

옛날 옛적에 프랑스는 곰팡이가 핀 치즈가 실제로 맛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멕시코인들은 옥수수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영어 사용자에게 옥수수 얼룩으로 알려진 Huitlacoche는 병원성 곰팡이에 감염된 옥수수 이삭에서 자라는 매우 어두운 녹색색 곰팡이다. 이것은 "만자르(manjar)"(진미)로 간주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케사디아(quesadillas)나 타코 안에 넣어 먹는다.

전갈(Escorpion)

전갈은 멕시코의 여러 지역, 특히 덥거나 습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다소 무시무시한 이 거미를 요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북부 주 두랑고(Durango)가 그렇다.

전갈 요리가 반드시 전통적인 요리는 아니지만, 두랑고에서는 전갈을 맛볼 수 있다. 전갈은 튀겨서 먹거나 타코 안에 넣거나 스틱에 꽂아 먹을 수 있다.

치카타나 개미(hormigas chichatanas)



치카타나 개미는 오하카의 또 다른 별미다. 1.8~3cm까지 자라는 이 거대한 개미는 뜨거운 팬에 구워 바삭바삭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구워서 바로 먹어도 되지만, 갈아서 소스에 찍어먹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많은 품목과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주로 오하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베라크루즈와 타바스코

원주민도 치카타나를 즐긴다.

후밀레스(jumiles)

게레로에 있는 탁스코(Taxco)의 푸에블로 마히코(Pueblo Mágico)의 전형적인 요리다.

그들은 소스나 라임, 소금과 함께 먹거나 타코에 넣어 먹는 날아다니는 곤충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마일이 참나무의 가지와 막대기를 먹기 때문에 계피 맛이 난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강한 맛이다.

jumiles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꽤 높은 곳에 살고 빠르게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진미 외에도, 그들은 방문하기 위해 날아가는 죽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Taxco의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신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꾸에틀라스(Cuetlas)

콜럼버스 이전의 또 다른 식사인 꾸에틀라는 나비 애벌레다. 이 유충은 우기 동안 선택된 몇 가지 유형의 나무에서 자란다.

주로 푸에블라에서 먹지만, 게레로(Guerrero)와 베라크루즈(Veracruz)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맛은 맛있고 메뚜기의 맛과 비슷하다. 게다가 단백질, 철분, 비타민B도 풍부하다.

꾸에틀라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카몰레(guacamole)를 곁들인 타코를 굽고 안에 넣는 것이다. 물론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이름보다 더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는 눈 타코, 방울뱀, 페젤라가르토(pejelagarto) 물고기, 쥐 수프, 호수 새우, 뇌 등도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먹거리로 발견할 수 있다.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모험심을 느끼고 싶다면 잠시 여행을 떠나서 지역의 특색있는 메뉴도 한번쯤 시식해 보면 어떨까?

미쉐린(Michelin)이 인정한 멕시코 최고의 레스토랑은 어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미쉐린 스타 시상식에서 16명의 셰프와 레스토랑이 별 1개를, 푸졸(Pujol)의 엔리케 올베라(Enrique Olvera) 셰프와 킨틸(Quintonil)의 호르헤 발레호(Jorge Vallejo) 셰프에게 별 2개를 수여하는 감동과 놀라움의 밤이 펼쳐졌다.

시상식 행사는 Roberto Cantoral Cultural Center에서 열렸는데, 이곳에는 Oaxaca, Quintana Roo, Baja California Sur, Baja California 및 Mexico City의 157개 레스토랑도 인정 받았으며 각 셰프는 미쉐린 썸이 찍힌 검은색 필리핀 재킷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번 미쉐린 인정식에는 멕시코 전역에 걸쳐 유명 레스토랑이 거의 모두 포함되었는데 오하카(Oaxaca), 킨타나루(Quintana Roo),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Baja California Sur),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및 멕시코시티(Mexico City) 등 157개 레스토랑이 인정을 받았다.

칸쿤 Le Chique 레스토랑의 셰프 Jonatan Gomez Luna는 "경력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MILENIO와의 인터뷰에서 미



슐랭 스타를 받은 소감을 밝혔다. "학창시절부터 25년 동안 품어왔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자부심과 동시에 큰 도전이자 책임감을 갖는 일" 이라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것" 이라고 했다.

멕시코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잘 알려진 Pujol의 Enrique Olvera 셰프와 Quintonil의 Jorge Vallejo 셰프는 미슐랭 스타 2개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명성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는데 이는 미식 경험을 즐기기 위해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에 거주중이거나 여행중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서 미쉐린(Michelin)이 인정한 전문 셰프가 내놓는 독특한 요리를 맛보는 경

험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멕시코에서 미슐랭(Michelin)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다음과 같다.

- (별 1개 획득 레스토랑)
- Una estrella
- 칸쿤(Cancun): Jonatan Gomez Luna: Le Chique
- 칸쿤(Cancun): Carlos Gaytan y Cristian Castillo Sanchez: Ha', Xcaret
- 멕시코시티(Mexico city): Edgar Nunez: Sud 777
- 멕시코시티(Mexico city): Ana Dolores Gonzalez: Esquina Comun
- 멕시코시티(Mexico city): Elena Reygadas: Rosetta
- 멕시코시티(Mexico city): Arturo Rivera: El Califa de Leon
- 오하카(Oaxaca): Thalia

- Barrios: Levadura de Olla
- 오하카(Oaxaca): Chazz Titus: Los Danzantes
- 바에 데 과탈루페(Valle de Guadalupe): Jorge Javier Plascencia y Oscar Torres :Animalon
- 바에 데 과탈루페(Valle de Guadalupe): Esteban Lluís: Damiana
- 엔세나다(Ensenada): Drew Deckman: Conchas de Piedra
- 리베라마야(Riviera Maya): Nahum Velasco: Cocina de Autor
- 멕시코시티(Mexico city): Lucho Martinez: EM
- 몬테레이(Monterrey): Rodrigo Rivera Rios: Koli Cocina de Origen
- 몬테레이(Monterrey): Guillermo González Beristain: Pangea
- 로스카보스(Los Cabos): Sidney Schutte y Francisco Sixtos: Cocina de autor
- (별 2개 획득 레스토랑) Dos etrellas
- 멕시코시티(Mexico city): Jorge Vallejo: Quintonil
- 멕시코시티(Mexico city): Enrique Olvera: Pujol

미쉐린(Michelin) 별 두 개 받은 Polanco 레스토랑 2곳

식도락가나 음식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번쯤 방문했을 곳이다.

워낙 유명한 셰프로 알려져 있다보니 입소문을 타고 고급 메뉴를 경험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웬만한 요리 경연대회는 수상을 도맡아 하다가 피 한 곳이다. 이번에 미쉐린(Michelin) 별 두개를 획득한 이 레스토랑 셰프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멕시코에서 항상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사실 일반인들 눈에는 그저 '풍성' 한 것이 최고라고 여기



▲ 미쉐린 별 2개를 획득한 멕시코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인 Quintonil (셰프 Jorge Vallejo) Mexicocity Polanco에 있다.



▲ 미쉐린 별 2개를 획득한 멕시코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인 Pujol (셰프 Enrique Olvera) Mexicocity Polanco에 있다.

이 걸리고 나오는 음식도 한 끼 요기라고 하기에는 한 참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방문해야 실망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멕시코에서 최고의 셰프가 내놓은 최고의 음식을 맛보는 경험도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나로사와 가까운 폴랑코(Polanco)에 있으므로 기회되면 한 번 방문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 서비스 등 일반 레스토랑과 차이점을 발견해 보는 것도 훌륭한 재미로 다가 올 것 같다.

는 경우가 많이 실제 이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시간도 많

재무장관 유임 원하는 셰인바움 당선자, 이유는?

현 여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셰인바움 당선자가 당선도 되기전부터 재무장관으로 점찍고 있는 인기 상한가(?) 남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후보시절 줄곧 지지율 1위를 고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여당 대선후보인 Claudia Sheinbaum 이 미리 공언을 한 인물이다.



新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새 인물이 아닌 前정권의 인물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은 그동안 각종 재무정책을 주도했던 측근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당히 민감한 일이다.

그럼에도 재무장관직을 두고 당선 전부터 특정인을 점찍어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떡여지는데 이유는 현 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인 GDP 5.4%에 이르는 멕시코 국가 재정적자는 현 정부, 특히 현 대통령의 무리한 국책사업이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차기 정권을 물려받게되는 셰인바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 셈이다.

쉽게 말해, 엄청난 적자 정부를 물려받아 임기내내 '적자정부' 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하는데 새로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현재, 멕시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은행, 증권사, 신용 위험 평가 기관 및 분석가들은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높은 금리 환경에서 2024년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신흥 경제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묘수(?)를 발휘했는데 다름아닌 현 정부의 재무장관이 새 정권이 탄생해도 계속 이어 재무장관직을 맡아 달라는 것으로 이는 前정부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책임전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인 당사자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이면에는 이같은 장기미제가 될 해결과제를 모두 떠안긴 셈이다.

또 다른 이유도 거론되는데, 재무장관은 하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갈 길 바쁜 새 정부에서 현재의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이같은 시간낭비 요소를 차단하고 정책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dres Manuel Lopez Obrador 현 대통령인의 야당 시절부터 Rogelio Ramirez de la O 현 재무장관은 곁에서 정책자문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으며 이 시기가 2012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0년 가까이 야당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해오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요직을 거쳐 재무장관으로 발탁, 임기말까지 멕시코 재무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Ramirez de la O 가 이끄는 재무부는 연방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재정적자에는 동의하면서 "적자는 1회성으로 시행중인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해결되는 문제" 라고 우

려를 일축하고 있다.

반면, 여당 대선후보측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너희들이 남아서 해결하고 가라"는 식으로 안일한 현 정부의 재무관료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BBVA 지역 자문 전국 회의에 참석한 Ramirez de la O 재무장관은 "(누가 당선되든)연방 정부가 내년에 정 적자를 5.4%에서 2.5%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면서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팀과 함께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2025년 경제 패키지의 상당 부분을 준비할 예정" 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셰인바움 경제그룹은 질서 있는 인수를 주장하며 적어도 집권 첫 해에는 재무 장관과 차관을 그 자리에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제한된 공공 지출 등 긴축경제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만에 최대 적자, 공공 재정 관리 부실로 인한 임기 초 위기 가능성 등의 유산을 받고 싶지 않은 여당 대선후보의 재무장관 유임설은 그런의미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에로멕시코, 멕시코시티발 에콰도르행 항공편 중단

멕시코 국적 항공사가 몇 달 동안 에콰도르 수도 키토행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Grupo Aeromexico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에콰도르 키토(Quito)까지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Aeromexico는 일주일에 4번 운항하고 있었다.

이번 운항금지 조치는 지난 4월 에콰도르 정부가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멕시코 대사관에 불법 침입

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에콰도르와의 외교관계가 단절하면서 헤이

그 법원에 남미 국가의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 가입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에콰도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Mariscal Sucre라고 불리는 에콰도르 키토 국제 공항은 연면적 1,500헥타르에 착륙장과 10개의 탑승실, 관제탑을 갖추고 약 500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에콰도르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이다. 이번에 운항 중단을 발표한 멕시코의 대표적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는 현재 총 107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4개는 멕시코 국내, 53개는 미국과 유럽이 눈에 띄는 해외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내년 8월 한국 서울 노선이 개통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모든 운영이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작년엔 2,47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면서 연간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영업이익도 덩달아 6% 증가했다.

15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 위기 이전에 비해 23% 증가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Voting Place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Eligible Voters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Required Documents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Mexico city / 멕시코시티

20년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멕시코시티 유일한 중화요리 전문점

짜장/ 짬뽕/ 탕수육/ 깡풍기/ 양장피/ 만두 등 40여가지 메뉴

예약 문의

55-5511-3939 / 55-5511-2848

Praga 54 Col. Juarez CDMX Mexico city

www.haringak.com.mx